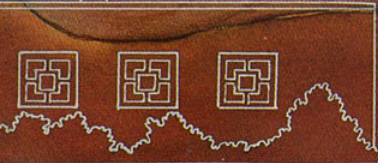


성도의 벗 6

1975

사도라하여 충만한
복음의 율법대로
생활하는
성실한 장로보다
영원한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
"장로 라야만" 1 페이지



월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6호
1975년 6월호

순서

1. 장로 라야만 브르스 알 맥콩키
8. 질의응답
10. 남미지역 대회
16. 남미의 교회
21. 심심풀이
22. 성찬
24. 사자와 율법 선생
26. 무엇이 음악을 만드나?
29. 뒤의 일을 잊음 케네스 엘 히그비
30. 영원히 함께함 마크 이 피터슨
34. 죽은 후에는 무엇을 리그랜드 리차즈
37. 산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40. 대회를 우리 생애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43. 뒤로 미루지 말라 엘드레드 지 스미스
46.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최 옥 환
47. 내외소식

대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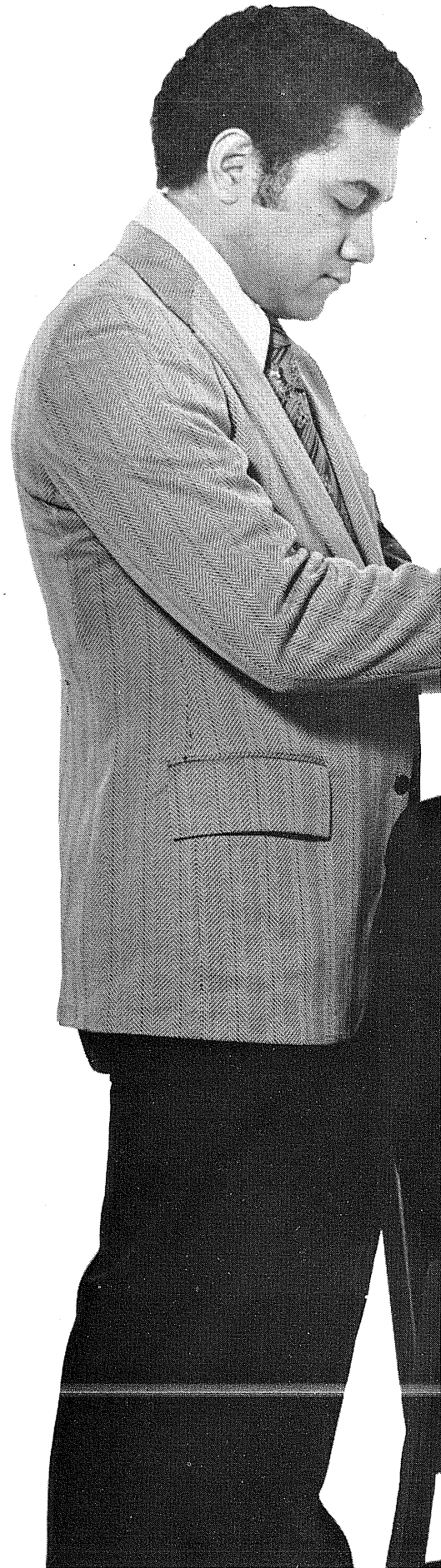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엘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6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9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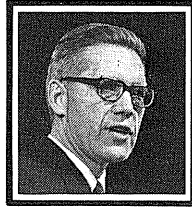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현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세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정가
 1권 150원
 1년분 (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장로 라야만



브르스 알 맥콩키

행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신권 직분이 무엇이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저 장로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일한 직분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칭호이며, 계시예 의해서 첫째 장로로 지명된 교회의 대관장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칭호이며(교성 20:2,5 참조), 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전에서 대리 의식으로 성임되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유일한 직분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인간이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아내와 자녀를 영원한 유대로 함께 결속시켜 주고, 후손에 대해서는 축복사가 되게 하며 영원히 이스라엘 가문을 다스리게 하고 주님의 전당에서 충만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승영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 주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라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왕국을 건설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성임된 유일한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의 모든 말이 경전이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받아 알게 되는 특권을 가지며 여러 하늘이 저희 앞에서 열려 하나님의 장자의 교회와 그 모든 회중과 서로 친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의 증보자 예수와 친교를 맺으며 임재하심을 누릴 권능이 있는 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교성 107:19 참조)

장로라야만 합니다. 교회의 모

든 장로는 교회의 대관장과 같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라 하여 충만한 복음의 율법대로 생활하는 성실한 장로보다 영원한 세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란 어떤 직분일까요? 장로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거룩한 벨기세벱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신하여 그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의 임무는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장로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선한 목자인 주님의 양이 있는 우리 안에서 봉사하는 목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겔 34:31) 첫 장로가 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벧전 5:1-4) 주님의 교회의 상임 교직자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주께서 성령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도다. 자 나오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자...그런고로 나 주는 너희에게 이를 묻노니, 곧 너희는 어떠

한 성직에 성임되었더냐?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에 성임되지 아니하였더냐?” (교성 50:10, 13-14) 장로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보내진 주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가면서 구원하려 한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귀한 영혼을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교직자인 장로의 가치는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장로가 하나님의 양을 먹이며 돌보며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언자의 대답을 들어 봅시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찢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겔 34:2, 4, 1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나 공화제나 과두정체나 독제정체의 성격을 띠지 않았으며 아무 정체도 닮지 않은 하나님 왕국입니다. 위의 지시를 밑에서 받아 이행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종이 존중합니다. 장로들이 세상에 나가고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은 장로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이 어린 양들을 먹이도록 함으로써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

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장로들을 활동화시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양을 치게”하는 일입니다.

장로들을 구원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비활동 회원을 활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복음의 축복을 생활속에서 느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 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할 때(우리가 당면하는 다른 문제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인정된 해결책이란 신권 협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신권 협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을 그 운영 체제 속에 참여시키는 교회의 관리 체제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교회의 체제 내에서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체제입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위원회나 기타 조직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계시에 의한 신권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20편에 설명된 대로 가정 복음 교사를 활용하고자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나 와드 협의 평의회를 통해 모든 신권 및 보조 조직 운영을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럴드 비리 대관장님께서도 신권 협의 개념을 신권을 주님께서 놓으신 자리에 놓으며,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셨습니다. (협의와 신권 계보, 계보 모임 말씀, 1968년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출판사, 1969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우리를 이끌어 줄 세 가지 기본 신권 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현세나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다른 봉사 단체와 같이 교회의 모든 조직은 다 가족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주님과 신권 지도자를 대표하여 가장과 가족과 개개인에게 교회의 모든 조직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신권 협의의 세 가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과 개개인이 중성이 되어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들이 선교 사업, 계보 사업, 개인의 복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맡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개개인의 일차적인 책임을 선교사나 위원회가 먼저 떠맡게 하지 않습니다.

와드에서 신권 계보에 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대체사 그룹 지도자가 아닙니다. 와드나 스테이크 선교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은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족과 개인이 이러한 교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직접 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 교회의 모든 조직은 가족과 개인을 돕습니다. 선교사, 위원회,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족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다. 교회 조직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부모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업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인 책임이며,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은 전문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3. 가정 복음 교사는 주님과 감독과 신권 지도자를 대표하여 가족과 개개인에게 교회의 모든 조직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전달합니다. 교회의 가정 복음 교육 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이상한 위원회를 조직해 놓고는 왜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로들을 활동화시키려면 특별한 조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보다는 가정 복음 교사나 교회의 현존하는 조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장로를 필요로 합

니다. 남아서 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완전해져야 하며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35억에 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현재의 선교사들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은 비활동 장로나 수련 장로를 활동화시키는 일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장로를 활동화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되고 가장 큰 책임은 장로들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침례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벨기세택 신권을 받을 때 그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축복을 간구해야 할 개인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를 활동화시켜야 할 책임





은 그의 가족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가족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여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결국은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가족 단위를 보존하는 것이 이들이 받는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족과 개인의 책임 다음 가는 책임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곳이 주님의 조직입니다. 대개의 경우 활동 축진은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한 예로는 가정을 맡고 있는 가정 복음 교사인 장로를 들 수 있습니다. 활동 축진 방법을 교회가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나 사명은 아닙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영감의 영이 사업에 임해야 하며, 이 사업은

신권 협의 체제 내에서 현존하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부장이 장로들의 활동 촉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는 스테이크 내의 관리 장로이며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합니다. 이 사업의 중책을 위임받아 인도할 사람은 그의 보좌입니다. 그는 이 위원회의 부의장이 됩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와 그의 스테이크 내의 다른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고등 평의원을 활용하여 두세 장로 정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스테이크 부장은 와드의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을 활동 촉진 과정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고등 평의원은 침착하고 판단력이 풍부하며 영적인 면에서 원숙한 사람으로 스테이크 내에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부장의 눈이요 귀요 입입니다.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의 각 고등 평의원이 그의 주요 임무로 두세 장로 정원회를 돕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등 평의원은 지금까지의 폭넓은 교회 경험을 토대로 삼아 어떤 현명하고 건전한 권고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1) 정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며, (2) 정규적으로 장로 정원회 회장과 만나 지시와 임무를 주며, (3) 정규적으로 장로 정원회 회장과 개인 신권 접견을 갖는 일(그의 보좌에게 위임할 수도 있음)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각 와드에 장로 정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와드 내에 있는 모든 장로는 그 수에 관계없이 정

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와드 내의 모든 수련 장로는 이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과 지도를 모두 받으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정원회 회원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은 모든 장로와 수련 장로를 돌보며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장로를 활동 촉진하는 중요한 개인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와드를 관리하며,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가 됩니다. 그는 십일조와 헌금을 받습니다. 그는 회원이 신전 추천을 받기에 합당함을 결정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추천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불러 와드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합니다. 그는 관리 대제사로서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가 협의 평의회를 관리하며 장로 정원회 회장을 포함한 각 모임의 구성원에게 권고를 줍니다.

그는 장로 회장으로부터 신권 평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매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장로 정원회 회장입니다. 그는 그의 정원회 회원을 관리합니다. 그는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칩니다.” (교성 107:89) 그는 그들의 세속적 복리와 영적 복리를 돌볼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이끌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와드 내의 모든 수련 장로까지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을 제외하고 와드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만큼 중책을 맡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형제들을 활동화시키는 일이 너무 막중한 일이어서 그 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라



고 생각하는 장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해 내든가 기존 체제를 개조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활동 촉진 과정은 이미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기도 쉽습니다. 무거운 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짐은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활동 촉진 과정은 (1) 가정 복음 교사를 활용하고, (2) 교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3) 합당한 방법으로 정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활동 촉진 방법은 항상 일대 일 가족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우정 증진을 뜻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활동 촉진을 위해 가정 복음 교사를 활용하십시오.

가정 복음 교육과 대치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장로나 수련 장로를 활동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별 우정 증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정 증진을 위해 특별히 역원을 불러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계시에 따라 행하도록 명을 받은 일들을 가정 복음 교사가 행하도록 그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교회의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며, 그들의 생활에 악행이 없나, 그들이 가족의 의무를 다하나를 살피게 됩니다.

암담하고 쉽게 낙담할 만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착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짐

도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 장로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일대 일로, 가정대 가정으로 다른 장로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장로가 배로 늘어나는 데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를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름은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원회 회장, 감독, 주님의 의해 각 가정에 파견됩니다. 그들은 자주 그들이 맡은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리와 성약 20편에 명시된 임무를 실천하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그들의 가족은 비활동 회원 가족에게 우정 증진 활동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교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 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 저녁에 비활동 가족을 우정 증진과 복음 교육을 결들인 가정의 밤에 초대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해서 그들과 유대를 맺어 그들이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며 정원회의 가르침과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합니다. 활동적이든 비활동적이든 모든 정원회 회원은 가능한한 위원회나 정원회의 일을 맡아 봉사하도록 부탁을 받아야 합니다. 봉사란 구원에 이르는 필수 요건입니다.

교회 대관장단은 가족이 신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선교사와 다른 역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교 모임을 개최하여 우정 증진을 도모합니다. 모든 정원회 회원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읍니다. 회원은 병자를 축복하는 법도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갈 때 우정 증진을 도모하는 정원회 활동은 무한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활동 촉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개개인을 알고, (2) 가정 복음 교사를 부르며, (3)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4) 가족을 통해 우정을 증진하며, (5) 정원회 사교 모임을 마련하고, (6) 개인에게 책임을

을 맡기며, (7)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8) 현재의 발전 과정을 살피고, (9) 개인적인 접견을 갖는 것입니다. 정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은 회원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합당한 권능을 가진 사람과 성신의 권세에 의해서 가르쳐진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만 마음속에서 신앙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10 : 14-15, 17 참조)

장로 정원회는 예언자들의 학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장로나 수련 장로와 그의 가족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지상에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권회 교재로서 아무런 수정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은 표준 경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나 수련 장로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천이 되는 경전에서 진리를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제별로 읽을 수 있게 정리된 성구나 교수 보조 자료를 담고 있는 학습 지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1) 표준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며, (2) 표준 경전에서 뽑은 참고 자료와 함께 주제별로(교리와 의무 등) 공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과 체제 하에서는 정원회 회원은 반드시 경전을 지참하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킴볼 대관장님의 개인적인 간곡한 부탁입니다. 지역 대표의 한 분이신 딘 라슨 형제는 그의 대제사 그룹 모

임에서 교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과를 준비하시고 오늘 표준 경전을 갖고 나온 분은 몇이나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시다면 저는 공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과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후 회원들은 경전을 지참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공과는 공부를 대양에 비유한다면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학습 지도서는 우리가 가족 단위로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일학교에는 특별히 개종과 활동 촉진을 돕는 공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복음반이 바로 그 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주제를 다루는 열 두 가지 공과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성인은 복음 교리반에 들어 갑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그들이 접촉한 사람에게 어떤 공과가 소개되나를 살피고 정규 가정 복음 교육 방문시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 복음반의 과정을 이수해야 할 사람은 구도자, 새로운 개종자, 수련 장로, 비활동 장로 등입니다.

흔히 간과되기 쉬우나 우리가 추천하고 권장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각 와드에 합창단을 하나씩 조직해야 한다는 교회의 정책입니다. 음악에 재능을 가진 모든 장로나 수련 장로가 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로 정원회 합창단이 와드나 스테이크 모임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받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신권회 합창단



이 스테이크 대회에서 합창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드 합창단이 교회 음악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온의 노래는 개종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교성 25:12)

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때 개종자가 늘게 됩니다. 18세가 되어 장로로 성임되고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감독으로부터 수년 동안 도움과 격려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회 회장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이 합당하게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것만큼 장로들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만큼 그 연령의 젊은이들을 크게 축복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장로 정원회는 우리의 모든 젊은이가 “주의 심부름하는 자”(교성 64:29)가 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교회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이 갖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장로 정원회 회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은이는 도덕적인 합당성을 특별히 강조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 기금을 저축하고 물문경을 읽고 간증을 키우며 개종 토론(비활동

형제의 가정에서 가르칠 기회를 받으며)을 배우고, 구도자를 찾으며, 선교 사업의 정신을 기르도록 권고해 줄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장로 정원회 회장에 의해 인도되고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멜기세덱 신권 지침서의 개성관이 이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완전히 다시 쓰여졌고 전문적인 사랑이나 절차보다는 원리를 더욱 깊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올바른 원리를 배우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정원회 일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성실히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보상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요한복음 4:35-36)

보라,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그러므로 추수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낫질하여 날이 다 가기 전에 거두어 자기의 영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구원을 쌓아 들지어다.

(교리와 성약 6:3)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5:6)

자, 여러분 다시 그들의 주제인 “여러분은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으로 되돌아 갑시다. 유일한 직분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와 예언자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요 그들이 불멸의 영광을 얻어 승영에 이를 때까지 지닐 수 있는 직분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딛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영광의 관을 얻도록 문을 열어 줄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 바로 장로의 직분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직분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십 사 장로는 무엇을 뜻하나이까?”라는 물음에 “요한이 본 장로들은 이전에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업을 충실히 행하고 죽은 장로들이요”(교성 77:5)라는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실한 장로이며, 다음 세상에서 승영에 이를 장로에 관해서 요한이 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뒤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제 4:1-2, 4)

장로들만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가 되게 하시기를 자하노라”(민 11:29)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장로가 성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양을 돌보시며 모든 양의 모범이 되어 그들이 받드는 주님께 영광과 명예를 돌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㉞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는 어떻게 신권 승진을 받게 됩니까?”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형제가 합당하다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한 직분에서 다른 직분으로 승진되어 장로가 되고 나서 칠십인이 되며 나중에 대제사가 된다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벨기세택 신권의 다른 직분에 성임되기 위해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승진하는” 사람이라고 사회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접견과 승인이 끝나면 신권의 높은 직분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성임을 받습니다.

사실 그러한 변화란 사람이 덜 중요한 직분으로 옮겨 간다는 견지에서 말할 때 승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새롭고 다른 책임이 수반되는 직분에 새롭게 부름을 받고 성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신권의 직분이 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부름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그가 받은 직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떠한 직분도 신권의 권능에 힘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신권에서 그 힘과 덕과 권능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모두 마음속 깊이 이러한 원리를 심어 둔다면 현재 있는 것처럼 교회 행정의 기능에 대한 오해는 적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칠십인이 대제사보다 더 위에 있냐 아니면 대제사가 칠십인보다 더 위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름이 다를 뿐 모두 부름은 같은 신권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한 명의 장로를 제외하고는 벨기세택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 장로가 하나님의 영감과 전능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벨기세택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어서, 만일 교회에 다른 역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신권의 반차에 따라야 하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를 통해 교회에 확립된 그 반차에 엄격히 따라 의식과 성임을 집행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148-149 페이지)

“교회에 다른 역원이 있다면” 이라는 말씀은 신권의 각 직분이 다른 의무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따라서 한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아무도 승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되고 신권의 새로운 직분을 받아 성실히 일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권의 직분이란 모두 벨기세택 신권에 속한 것입니다. (교성 84 : 29-30)

제이 앤더슨

이스트 밀크리크 스테이크

“자신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지각 있는 인간이라면 불은 뜨겁고 얼음은 차며, 사람은 친절하거나 불친절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간증이란 어떤 사실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이거나 확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간증도 우리가 연구, 회상, 연습, 시험, 소망, 노력, 경험, 학문 등과 같은 자연 현상이나 인간 행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얻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현명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 교훈을 알리라”(요 7 : 17)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하나님께 구하라...”(약 1 : 5)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며, 그가 합당한 권능을 가진 신권도 지도자를 통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간증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됨에 대한 간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말해서 그러한 성스러운 선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와 확신은 (1)소망 (2)연구 (3) 노력 (4)기도를 통해 얻게 됩니다. 연구는 지식의 문을 열어 주니

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력, 다시 말해서 습득한 지식의 적용이란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식이 시험을 받는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는 기도란 보람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며, 성령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이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정직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문점을 입증해 보기 위해서 시도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을 두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십시오. 표현은 행동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감독과 같이 믿음직스런 보좌나 교사에게 솔직히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성스러운 선언이나 확언을 발표하는 첫 노력이자 신에 대해서 전에 느껴 보지 못한 점을 좀더 알게 해준다는 사실로 큰 감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서 10장 4-6절과 교리와 성약 9편 7-9절에 실려 있는 약속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믿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서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무엇이랴도 선한 것은 바르고 참되며, 무엇이랴도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느니라.”

“보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

만일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이 좋은 느낌을 받는 때나 나쁜 느낌을 받을 때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모로 10 : 5)라고 말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여러분은 사물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속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로 듣고도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어디서 그 소리가 왔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의 촉감으로도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경계가 모든 것을 다 탐지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빛과 암흑, 선과 악,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빛의 원천인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며, 그곳에서는 문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져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알고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1925년판, 52페이지, 설교집, 13권 136페이지)

끝으로 여러분이 청천벽력과 같은 특별한 시현을 기대하지 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증이란 대개의 경우 서서히 강해집니다. 마음먹고 닦고 노력함에 따라 서서히 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를 얻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망을 버리고 다른 것과 바꾸려 하며, 그저 떠다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간증을 얻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곧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간증을 멀리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졌다는 것을 선언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던 다소의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은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체없이 분명하게 그의 지식을 천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활동과 기도가 계속됨에 따라 교리와 성약 50편 24절에 있는 다음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 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

지 호머 더햄
유타주 고등 교육국장

남미 지역 대회

현황

최근에 남미 지역에서 개최된 대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 2일에는 브라질 회원을 위해 상 파울로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월 7, 8, 9일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을 위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대회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회원들은 지역의 문화제를 반영해 주는 노래와 무용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특별 모임이 토요일 밤에 개최되었고 일요일 아침에는 신권 지도자를 위한 특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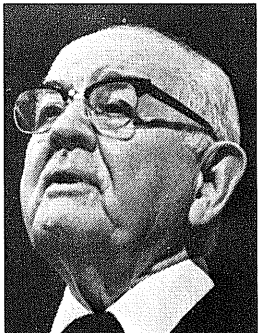
김볼 대관장님이 태너 부대관장과 총관리 직원 대표단과 함께 오셨습니다. 십이사도를 대표하여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엘 톱페리 장로가 참석하였으며 십이사도 보조로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프랭크 린 디 리차즈, 제임스 이 파우스트(브라질만),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장로가 참석하였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는 에이 테오도르 터틀, 하트만 렉터 이세, 렉스 디 피네가 장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이 지역 대회의 개요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낀 감동,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요? 대회는 참석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대회에 관해서 인터뷰를 받은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 가지로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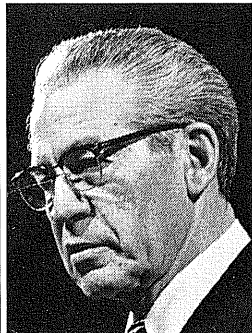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를 직접 보며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라고 어느 사람은 말했습니다. “신전 건립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았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을 들려 준 합창단에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대회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자가 대회에 참석하신다는 사실에 온갖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합창단원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내어 연습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문화의 밤에 참여한 사람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여 왔으며, 그들이 준비한 내용을 보다 훌륭히 발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와 그를 수행해 온 총관리 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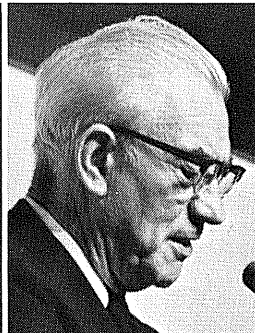
김볼 대관장님과 그 일행이 도착했을 때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그들이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큰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상 파울로 대회의 개회사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분의 여건



김볼



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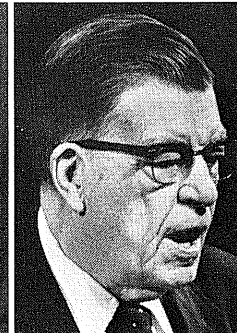
피터슨



스테이플리



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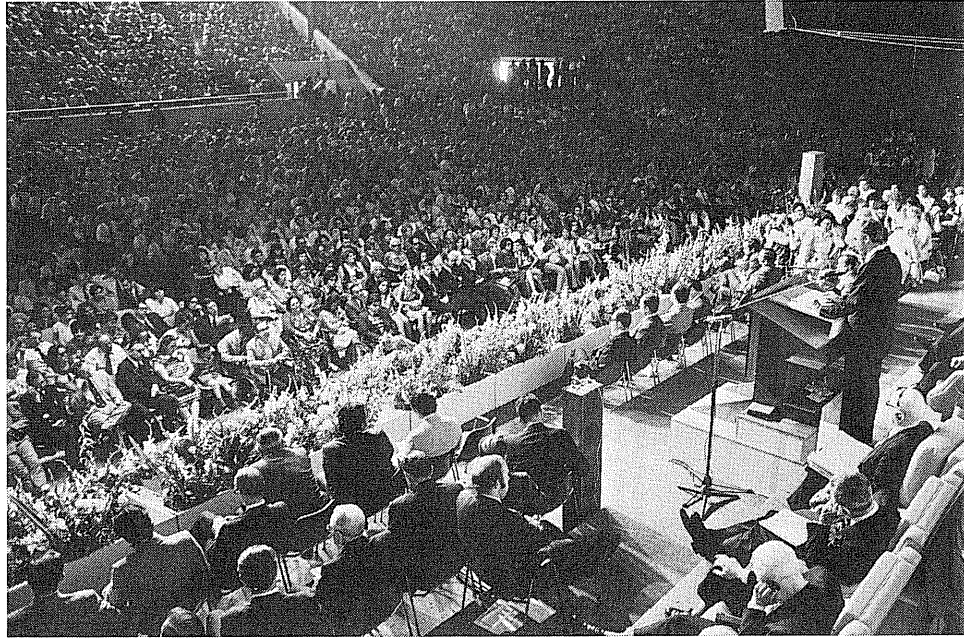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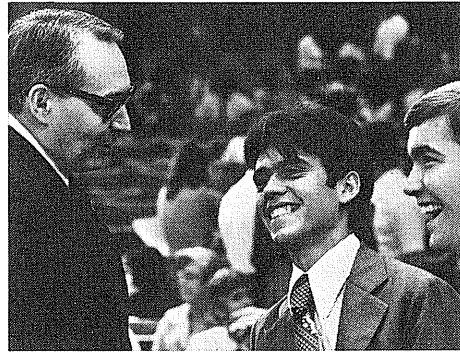
크리스찬슨

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남미에 17 번째로 주님의 신전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브라질의 상 파울로에 신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신전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루과이에서 온 어느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전에 가기 위해서 저축을 하자면 적어도 십 년은 걸릴텐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전이 남미에 건립되면 모두가 수년 이내에 신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전이 세워진다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은 보다 적절한 대답이 마음속에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순서가 영적으로 고조된 느낌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례로 금요일 저녁 문화의 밤 프로그램은 수백 마일 이역에서 온 성도들에게 단합된 느낌을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각 참가팀이 모두 상대팀의 독특한 재능과 문화적인 유산에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합창과 문화의 밤을 준비한 사람들은 연습 과정을 통해 서로 사귀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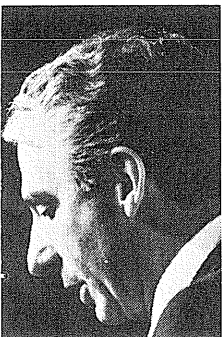


빅터 에이 페이지스, 래리 힐러 촬영

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이 싹트게 되어 몇몇 쌍은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미는 청소년이 교회 회원의 태반

을 이루고 있으며 대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문화의 밤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한 순서를 준비한 것 이외에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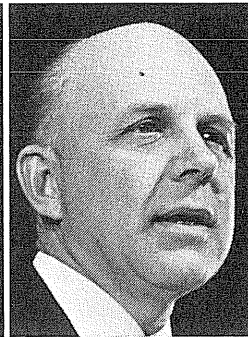
화이안스



리차즈



파우스트



터틀



렉터



피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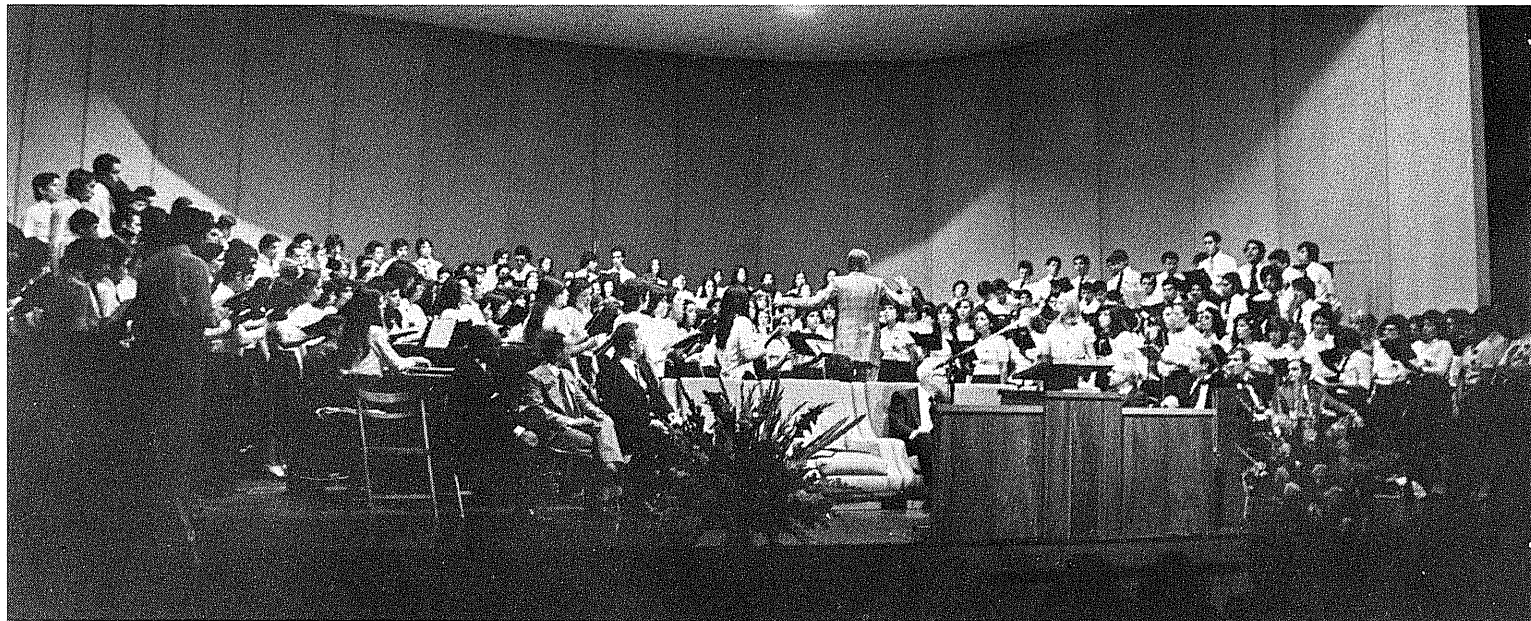
들은 아름다운 합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일례로, 상 파울로에서는 1,200명의 신학원 학생이 주일 아침 모임에서 합창을 들려 주었습니다. 청색 셔츠를 입은 신학원 학생들이 대회장 중심부를 꼭 메웠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에도 그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단 위에 선 총관리 역원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를

때 열의는 더해 갔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비회원들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것이 바로 그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일례로 브라질에서는 수백만 시청자를 가진 최고 인기 텔레비전 뉴스 프로에 대회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 멘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합창단을 어디에 머물게 하셨나

요?”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물론 이런 합창단은 사람들이 상 파울로에 모이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다고 대답되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태도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상 파울로 안헨비 대회장의 매니저는 이처럼 깨끗하고 잘 조직된 그룹이 이 시설을 사용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



니다. 뉴스 담당 기자가 전세내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운전수는 몇 시간을 대회장 밖에서 보내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회 군중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 그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지 못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왔지요? 다투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모두 사랑에 찬 표정들이군요.”

상 파울로 대회의 진행 과정은 폐쇄 회로를 통해 다른 건물로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대회 첫날 아침 기도 시간에도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 폐회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이 조종실로 들어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일성도가 아니었던 기술 책임자는 그를 향해 “쉬 조용해. 지금은 기도 중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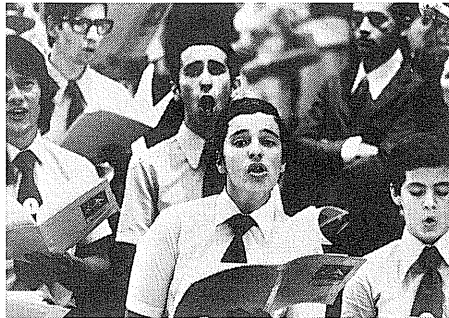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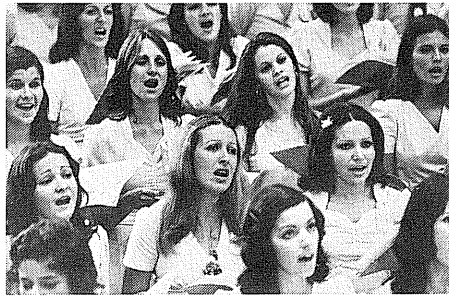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도들도 참석한 비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대회 장소 시설 관리 책임자는 이들의 청결한 정신과 질서 있는 태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물밖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도 똑같은 사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비회원 방문자들은 성도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인 개인적인 희생에 관해서 알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선교부장은 성도가 대회에 오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분의 봉급을 저축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추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석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외의 일을 하거나 모금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회 장소에 오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시간 이상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칠레에서 온 한 사람은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오기 위해 65시간을 차에서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희생이 얼마나 컸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명을 내
가 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을 멘다면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죄와 악습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신권 직원
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프랭크린 디 리
차즈 장로가 신권 지도자로서의 능력
개발에 관해 행하신 말씀을 들었습니
다. 그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 관해
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활과
작업을 간소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
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이상
을 하려고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음으
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
니다.”

바로 그 신권회에서 델버트 엘 스
테이플러 장로는 신권의 속성에 대해
서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신권의 힘과는 다른
입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을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활동하지 않고 순종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신권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
다. 신권은 개인에게 그대로 잠재해
있을 수 있으나 신권의 힘은 결코 발
휘될 수 없습니다. 것처럼 비활동적
인 사람은 개인의 이로움을 스스로
거부함은 물론 성실하게 생활하여 축
복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를
얻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부모와 청소년이 참석한 모임에서
도 특별한 권고가 주어졌습니다. 킴
블 대관장님은 가족 단위를 약화시키
려는 무리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당면하는 유
혹을 부모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결
책은 계명을 지키고 가족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대답한 점입니다. “이곳에 오
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바로 그 점이 본 대회
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자와 다른 총관리 역원의
영적인 권고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
에 기대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에게 준 여호
수아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상기시켜
주는 킴블 대관장님 말씀을 들었습니
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는 또한 신전 건립 문제를 상기시

키면서 이를 위해 희생하도록 권고하
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이 신
권을 새로운 희생물로 받아들이시거
를 바랍니다. 이는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 (찬송가 185장(찬양해 여
호와와 대화한 사람)라는 찬송을 우
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께 오는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아
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영원히 인봉되
고 모든 자녀가 다시 그들에게 인봉
되어 죽은 후에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
과 같이 되고 의로움 안에서 성장하
여 함께 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축
복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나의 명
을 메라”(마 11 : 29)는 계명에 관



니까? 술에 취해서 다가 오는 위험도 모르고 잠에 빠져 버렸겠습니까? 나무가 시들어 버리고 땅이 말라 황폐해졌겠습니까? 바빌론이 수라장이 되어 버렸겠습니까?”

상 파울로 대회에서 렉스 더 피비가 장로는 부모와 기도에 관해서 이

활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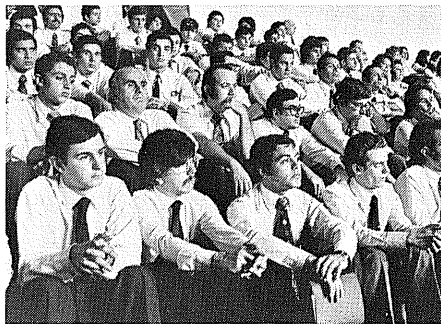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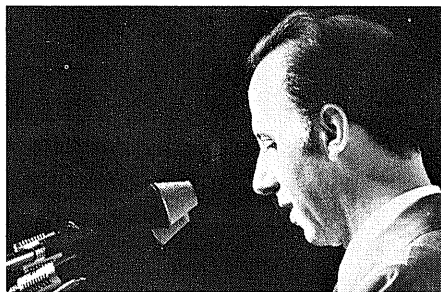
이 모임에서 청소년들은 총관리 역원의 사랑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와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청소년에게 준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은 선교 사업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상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만 속한다면 좀더 행복해지고 굶주림의 고통을 덜 받게 되며, 보살핌도 잘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온세상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미에서만 5000명의 선교사가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남미에는 5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선택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이란 십일조를 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두 십일조를 다 내야 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일조를 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된 젊은 대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정말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선교 사업은 어디에서 하셨지요?” 그는 그녀에게 학교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겠군요.” 그는 곧 오스트레일리



주님의 프로그램은 “아버지를 가장의 바른 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어머니를 사회 생활이나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며, 자녀들을 쾌락이나 유희만의 즐거움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이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온갖 악한 결과를 씻어 주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고대 문명의 멸망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빌론에 살았던 모든 가장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고를 가르치고 훈련하였다면 그 위대한 도시가 모래로 뒤덮히고 그 부패상이 땅 속에 묻혀 버리며 새이 말라버리고, 신전이 무너졌을

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성실하게 드리시던 기도에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나의 구원의 방편이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나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오는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이들은 의로운 소망을 지니고 부모님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기도한 대로 생

아로 가는 첫 선교사 그룹에 끼게 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 하였습니다. 소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 중 여러분만큼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손에 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바를 말할 수 있고 “선교사를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17세 되는 아름다운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좀더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갖기로 했어요. 내 남동생에게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거예요.” 상 파울로 웨스트 스테이크의 푸에르타 스테이크 부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을 말했습니다. 대회가 있기 직전 그는 한 청년과 선교사로 나가는 문제에 관해 접견을 가졌습니다. 기술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청년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로 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회가 끝난 후 선교 사업에 관해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스테이크 부장을 찾았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의 열의는 그들의 눈과 얼굴에 담긴 표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이 깨끗해진 느낌이예요”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예언자와 악수도 했어요”라고 감탄에 찬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총관리 역원과 지역 대표들에게도 이번 대회가 옛 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과거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남미에서 선교사로서, 선교부장으로 서, 선교부를 관리하는 역원으로서 성실히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참석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였으며 그들을 불러 현재와 같은 지도자의 직책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발전하고 회원들이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 대회에 참석한 수천이 넘는 헌신적인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2대와 3대째 회원인 성실한 많은 청소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많은 회원이 그들의 생애 동안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들 총관리 역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회에서는 킴블 대관장님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위해 마련된 모임에서 말쑥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스트 스테이크 부장단 제 1보좌인 미구엘 아리바 형제는 그의 아내가 10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진찰도 받았고 수술도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며, 더 수술을 해서 아이를 갖지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리바 형제는 꿈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살아 계신 사도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곧 중요한 부름이 오고 그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8개월만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당시 십이사도의 한 분이었던 킴블 대관장님이 아리바 형제를 감독으로 성임하였습니

다. 그가 꿈에서 본 사람이 바로 킴블 대관장님이었습니다. 2주만에 아리바 자매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의사는 그녀가 임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어느 자매는 지역 대표인 알렌 리처터 형제에게 다가가서 킴블 대관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주선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킴블 대관장님이 그녀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아이들 열 명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옆에 선 귀여운 십대 소녀를 가리키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 아이가 킴블 대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선교사가 남미에서 신앙의 씨를 뿌리며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수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갖는 동안 다음 몇 년 안에 결실을 맺을 많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들 역원들의 권고에 감명을 받은 한 회원이 다른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권고에 감화를 받은 한 청년이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부모와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게 해 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지역 대회의 이야기를 다 쓰자면 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 참석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이들의 빛나는 얼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2일 사이에 상 파울로에서, 3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

남미 의 교회

남미 선교부

연 남미에서 교회가 조직된 지 21년만인 1851년에 남미에서는 최초로 팔리 피 프랫 장로와 그의 아내인 페베소퍼 자매, 루퍼스 알렌 장로가 칠레의 발파라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영구적인 선교부가 조직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도가 교회 초기에 이 지역에서 봉사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랫 장로는 남미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교 사업이 두 번째로 재정비 강화되었을 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그의 손자인 레이 엘 프랫이 첫 번째 온 선교사 팀에 끼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노력은 첫 번째 시도가 있던 후 75년만인 19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관장단은 앤드류



젠슨과 토마스 에스 페이지를 남미에 보내 선교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건이 양호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선교부를 조직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때에 독일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주한 두 독일인 가정의 가장인 빌헬름 프리드리히와 에밀 호페 형제가 선교사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두 가정은 정규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나 프리드리히 형제는 집사였고 호페 형제도 교사였으므로 침례를 베풀거나 지부를 이끌 권능이 없었습니다.

이들 독일인 개종자들은 1925년 12월 6일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벨빈 제이 벨라드와 칩십인 제일 정원회의 루론 에스 웰즈, 레이 엘 프랫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19일 프리드리히와 호페 가족의 친구 여섯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 아침 일찌기 벨라드 장로, 웰즈 장로, 프랫 장로가 공회에 모여 그곳을 선교 사업을 행할 땅으로 헌납하였습니다.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종인 교회 대관장의 축복과 부름과, 내가 지닌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따른 권능으로 나는 남미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땅으로 문을 열

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을 온갖 힘을 꾸짖어 사라지도록 명합니다.”

선교 사업은 벨라드 장로가 8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마치기 2주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한 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도토리가 서서히 커서 참나무가 되듯이 당분간은 서서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자라서 없어지는 해바라기처럼 하루만에 급성장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교회에 들어 오게 될 것입니다. 선교부도 하나 이상으로 나뉘이게 되며, 교회에서 가장 강한 선교부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가장 작은 상태일 것입니다. 남미 선교부는 교회에서 강력한 큰 선교부로 발전할 것입니다.”(벨빈 조셉 벨라드의 설교와 선교와 선교 사업,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편, 데저렛 출판사, 1949년 100페이지)

아르헨티나의 교회

아르헨티나에 본부를 둔 최초의 남미 선교부는 1935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두 선교부로 나뉘었습니다. 더블류 어네스트 영 선교부장이 14명의 선교사와 255명의 회원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938년 프레데릭 에스 윌리엄스 선교부장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20여곳에서 정규 집회가 열렸고 4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만 6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남미에서 교회가 지은 최초의 예배당이 1939년 4월 9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 리니어스에서 윌리엄스 선교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선교부의 야구 및 소프트볼 팀이 아르헨티나 선수권을 석권하여 이름을 떨쳤습니다.

1944년까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3명의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교사가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선교사는 오지 않았지만 더블류 어네스트 영 선교부장이 다시 돌아와 선교부를 관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르헨티나에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1949년에 해롤드 브라운 선교부장이 부름을 받았고, 그의 재임시 보조 조직이 크게 발전되었고, 지역 회원이 지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새로운 도시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선교사가 우루과이에까지 파송되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방문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4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오셨으며, 1960년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에이 테오도르 터틀 장로가 다녀 갔습니

다. 완전한 규모를 갖춘 선교 사업이 개시된 지 10년만인 1959년에는 회원의 수가 3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혼듀라스 주재 외교관이었으며 1948년에 아르헨티나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로린 엔 페이스 부장의 재임시에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는 북부 아르헨티나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견하여 투코만과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1962년에 선교부가 나뉘었습니다.

4년 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남반구에서는 최초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스테이크를 조직하셨습니다.

이 스테이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으며 7개의 와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십이사도 지역 대표인 안겔 아브레아가 초대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크가 지금은 다섯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스트, 부에노스 아이레스 웨스트, 코르도바, 멘로자, 로자리오 스테이크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네 개의 선교부가 있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두 개의 선교본부가 있고, 로자리오와 코르도바에 각기 하나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회 회원 수는 27,000명에 달합니다.

브라질의 교회

브라질에 복음 사업이 시작된 것은 브라질에 정착한 독일 성도를 찾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두 명의 장로가 온 1927년으로, 아르헨티나보다는 약 1년이 늦었습니다. 이 두 장로들은 한 달 가량 머물면서, 남부 브라질은 “선교 사업이 크게 번창할 곳”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928년에 스투프 선교부장과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두 명의 선교사가 더 왔으며, 여기서 그들은 독일과 영국에서 개종한 회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6000명의 독일인 중심지인 조이빌에서 독일 성도 가족을 찾았습니다. 다음 한 해에 많은 독일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929년 그들은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조인빌에 있는 이 낡은 건물은 아직도 쿠리티바 브라질 스테이크의 조인빌 와드의 집회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35년 2월 9일 대관장단은 브라질 선교부를 독립시켜 루론 에스 호우웰즈를 선교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선교부 산하에는 7명의 집사, 4명의 교사, 4명의 제사, 29명의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성인 남자, 21세가 넘는 64명의 자매 회원, 35명의 어린이 등 모두 143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전 선교 지역에 9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 10여년 동안 선교사들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역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938년까지는 독일 이주민들 가운데서 독일어로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 해에 처음으로 첫 선교사가 포르투갈어를 배우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존 알덴 바우워즈 선교부장이 몇 가지 소책자와 물몬경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하였으며, 이것이 교회에서 포르투갈어로 나온 최초의 번역물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인 선교사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의 진행도 늦어졌습니다. 그후 10년만인 1954년에 데이비드 오맥케이 대관장의 방문을 계기로 교회는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이 다녀간 지 2년만에 대관장단의 헨리 디 모일 부대장관은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있었던 선교사 모임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수천의 개종자가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성장을 직접 보았으니, 50,000명 이상의 회원과 4개의 선교부와 9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이제 막 주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선교사가 받을 디더 보지도 못한 도시가 수 없이 많습니다.

브라질에 세워진 최초의 예배당이 1959년에 헌납되었으며, 그해에 브라질 남부 선교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후 몇 년 후인 1966년에 상 파울로에 본부를 둔 첫 브라질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이 도시에는 네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1972년에 리오 데 자네이로에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다음 해에 4개의 스테이크인 캄피나스, 산토스, 쿠리티바, 포르토 일레그레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에는 27개의 예배당이 있으며, 16개가 건축 중에 있고 21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브라질 성도들은 선교 사업의 참뜻을 알고 있으며 이웃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부에서는 지난 해 3주일 동안에 1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75퍼센트가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73퍼센트가 다른 회원의 소개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 브라질인들은 교회를 따뜻하게 맞아 들였습니다.

칠레의 교회

칠레에서의 선교 사업은 1851년 팔리 피 프랫 장로와 그의 일행이 첫발을 내디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덴처럼 비옥한 땅”이

라고 설명한 이 땅은 아르헨티나에서 두 명의 선교사가 도착할 때까지 95년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 칠레식이 1956년 11월 25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첫 칠레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리카르도 가르샤 실바 형제는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그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네 명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의 법 때문에 이 교회가 이곳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 많은 사람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칠레 산티아고 선교부에 9개의 지방부와 43개의 지부를, 산티아고 칠레 스테이크 산하에 8개의 와드를 갖고 있으며, 회원은 2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2년에 조직된 스테이크는 현재 있는 8개의 예배당 이외에 스테이크 센터, 다섯 개의 학교, 전 인구의 90퍼센트가 살고 있는 중남부 칠레 전역에 교회 목장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예배당이 현재 설계에 있습니다. 1974년에 두 개의 스테이크가 새로이 조직되었습니다. 1974년 12월 5일에 칠레 산티아고 선교부에서

비나델마 칠레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호세 레이톤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1974년 12월 8일에 조직된 산티아고 칠레 사우드스 스테이크 부장으로는 에드와도 아야라 형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은 초기 회원들의 신앙과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첫 선교사가 발을 디딘 지 일 년후인 1957년에 다섯 명이 한 지부를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지역 조건이나 기후 조건으로 보아 칠레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발파라이소, 비나델마, 탈코후아노 등 중부 칠레에 많은 지부가 서게 되었습니다.

초기 회원으로 카르로스 시푸엔테스 형제가 있는데 그는 지부장, 지방부장, 선교부장단 보좌를 역임한 최초의 칠레인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산티아고 칠레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으며, “교회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보인 우정과 형제애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가르쳐 준 첫 번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듣고 무엇보다도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기계나 기름만을 만지며 살아 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신권반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1961년에는 12개의 지부를 가진 칠레 선교부가 독립되었으며, 그 중에 4개의 지부를 칠레인 지부장이 관리하였습니다.

칠레에서는 선교 사업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시무엔테스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는 거의 매주 청 소년뿐 아니라 성인 중에서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회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성장의 속도를 교회가 갖는 가장 큰 목표의 하나로 보았으며, 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해결책으로 회원들의 성실성을 들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선교부의 로이튼 제이 글레이드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칠레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종교와 같은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밝은 기운이 이 나라를 감돌고 있으며 회복된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에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교회

남미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서는 스포츠가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루과이에서의 최초의 선교 사업은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거행된 남미 농구 선수권 대회에 교회를 대표하여 참가한 아르헨티나 선교사인 볼프 알 다슨 장로가 여러 차례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자신이 몰몬임을 밝힌 194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후에 프레데릭 에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사업 때문에 몬테비데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부장을 역임한 그는 아르헨티나 선교부 산하에 하나의 지부를 세워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우루과이에는 1947년에 선교부가 조직되었습니다. 4개월 후에 몬테비데오에 4개의 지부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첫 개종자가 우루과이가 아닌 파라과이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상호부조회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해 연말까지 66명의 선교사가 54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몬테비데오에 6개의 작은 지부가 서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 8개의 지부가 서게 되었습니다.

1949년 대관장단은 우루과이 선교부의 일부로 파라과이 아스콘손에서 선교 사업의 문을 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1950년부터 파라과이에서는 본격

적인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에 교회는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 받았고, 대관장단은 남미에서도 최초로 완전한 예배당과 활동실을 갖춘 건물을 짓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그후 4년동안 우루과이 선교부에서는 침례 목표가 230퍼센트나 초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파라과이에서도 백 명 이상의 회원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첫 스테이크가 1957년 4835명의 회원이 있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8개의 와드로 되었으며, 두 번째 스테이크는 1974년에 조직되었습니다. 몬테비데오의 아리엘 오 페드리고티 형제는 바쁜 교회 생활과 교회의 급속한 발전을 되새겨 봅니다.

그는 와드 재정 서기로 봉사하다가 1968-70년대에는 페루의 선교부로 가서 일했고, 그곳에서 돌아와서는 몬테비데오 스테이크의 공보 역원이 되었으며, 1973년에 결혼했고, 몬테비데오 제3와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인 25세에 그는 새로 조직된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웨스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감독의 80퍼센트가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원의 평균 연령도 35세에서 40세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대개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며, 그들은 제2세인 몰몬들을 훌륭히 키워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페드리고티 형제의 부친은 몬테비데오 지방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처음으로 조직된 스테이크의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한 바도 있고 현재는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이스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파라과이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3,4년 동안 2개의 지방부에 6개의 지부가 섰고 지역 지도자가 지부와 지방부의 일을 맡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圖

성도의 벗사는 본 자료를 기고해 주신 다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벨슨 베이커, 알테디르 피 바보르, 조셉 티 벤틀리, 안토니오 시 데 캠페르그, 오마 캐널스, 아리엘 오 페드리고티, 제임스 엠 휘셔, 로이튼 제이 글레이드, 랜델 해치, 폴 더블류헤이스, 고든 아이 아빙, 헬렌 쥘슨, 딘 라슨, 래리매드슨, 프랜시스 맥시모, 루이스 에이 라미레스, 주안 파블로 리볼디, 리리아나 이 알 데리볼디, 에이슨 로드니 사치, 구스타브 사릭크, 리처드 스콧트, 험버르토 데 안드라데 실베이라, 아사엘티 소렌슨, 자넷트 더블류 소렌슨, 린 에이 소렌슨, 매뉴엘 수엘도, 자임 빌라로보스 타피아, 아미 발렌타인.

성찬

행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내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너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 : 26-36)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미 대륙을 방문하시고, 니파이인에게 성찬 의식을 포함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이를 행하며...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 또한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니삼 18 : 6-7)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래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드실 때 그의 열 두 제자들에게 성찬을 취하도록 권하신 것처럼 주일마다 빵과 물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만 성찬을 취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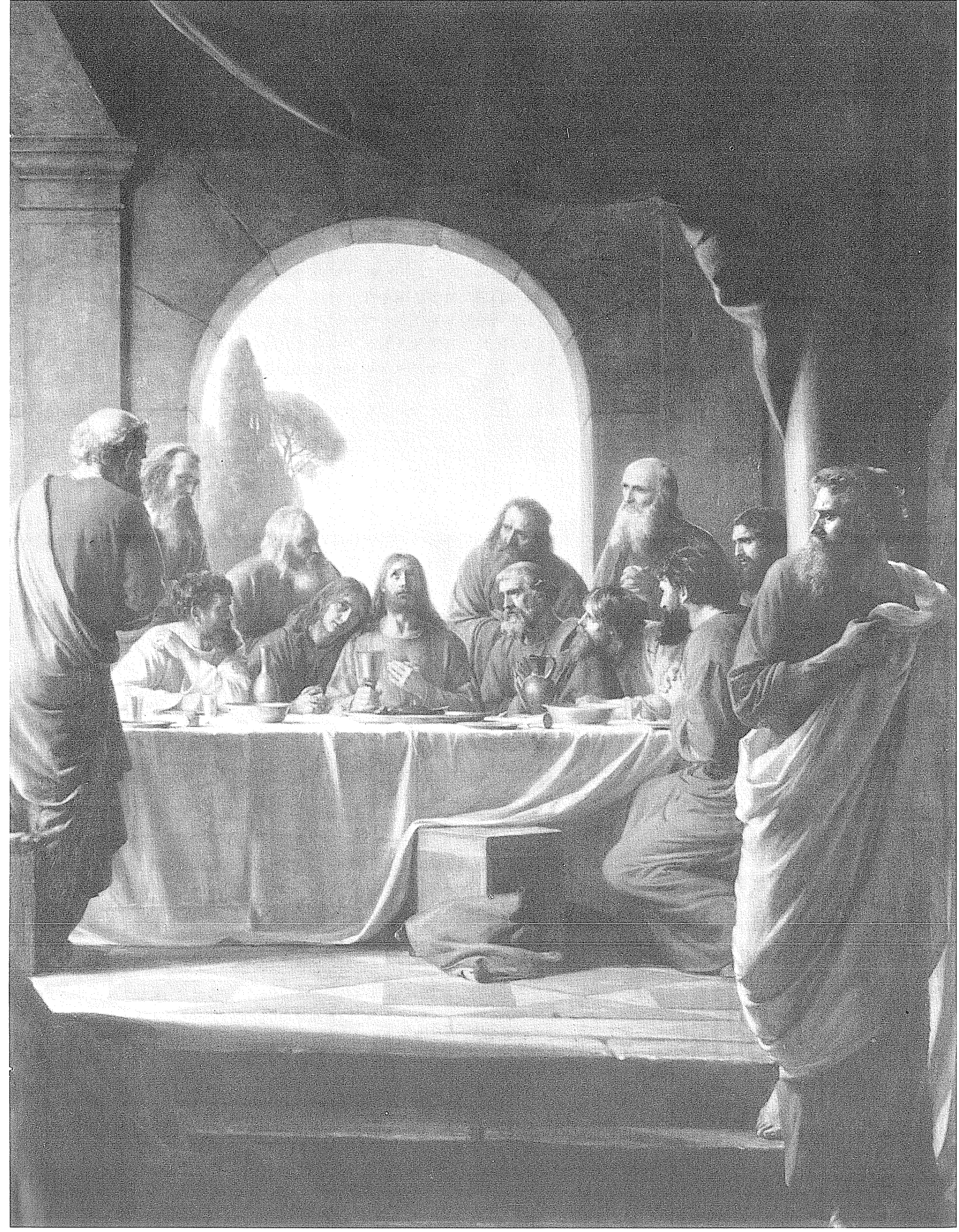
은 친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취하는 그 시간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행한 일을 반성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그시간에 다음 주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건히 구세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 버리게 됩니다. 성찬이 전달되고 있는 동안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매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은 보다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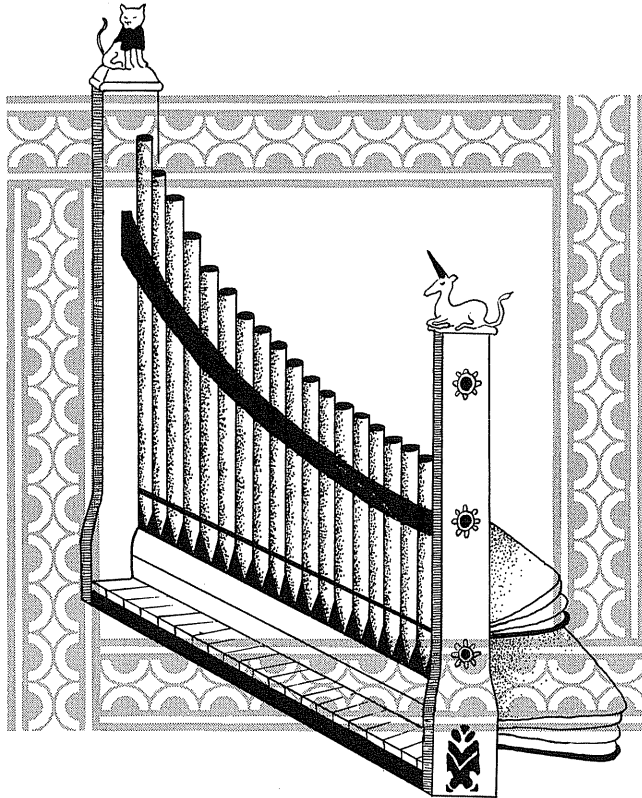
끌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주 나 위해
고통을 받으신 일 조용하게 앉아서
생각하면 나 피곤함 전혀 모르겠네.
나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면 피곤함을
전혀 모르겠네.

먼지 속으로 먼 길 걸으신 일
어린 아이를 사랑함 생각할 때 나
바르게 앉는 것 힘 안들죠.
나 조용히 듣는 것 힘안들죠.
나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면
피곤함을 전혀 모르겠네. [E]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풍금이 중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풍금은 손으로 배 속에 바람을 잡아 넣어 소리를 냈습니다.

5·6백년 전 용감한 기사들이 아름다운 숙녀에게 노래를 부를 때 아래 그림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이 음악을 만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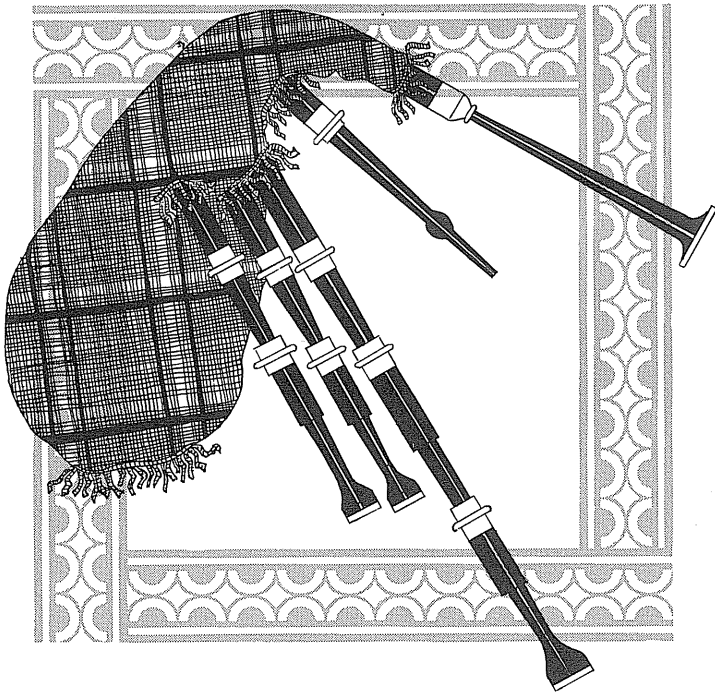
현 음악은 멜로디와 리듬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원시 시대의 선율은 그때의 문명 만큼이나 원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악기를 사용하여 소리가 어떻게 음악을 이루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음향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므로써 생깁니다. 이

러한 특별한 운동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진동할 때 음파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바다물 위로 돌을 던져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갈은 물이 작은 파도를 일으키면서 사방으로 밀려나가게 합니다. 음향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기게 됩니다.

진동이 빠를 때 높은 음향을 들을 수 있으며 진동이 느릴 때 낮은 음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초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음악적 음향을 내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가 수저로 냄비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냄비를 두드리면 진동을 일으키며 대기속에 음향 파동을 보냅니다. 이 음파는 시속 약 1,200키로메타의 속력으로 공간을 질주하여 여

“뺨 파이프”는 기이한 관악기입니다. 맨 위에 있는 튜브는 음률을 내는 통입니다. 바로 밑의 튜브는 “뺨 파이프”를 부는 사람이 입을 대는 부분입니다. 아래 세개의 튜브는 하나의 음률만을 내는 저음관입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공기가 채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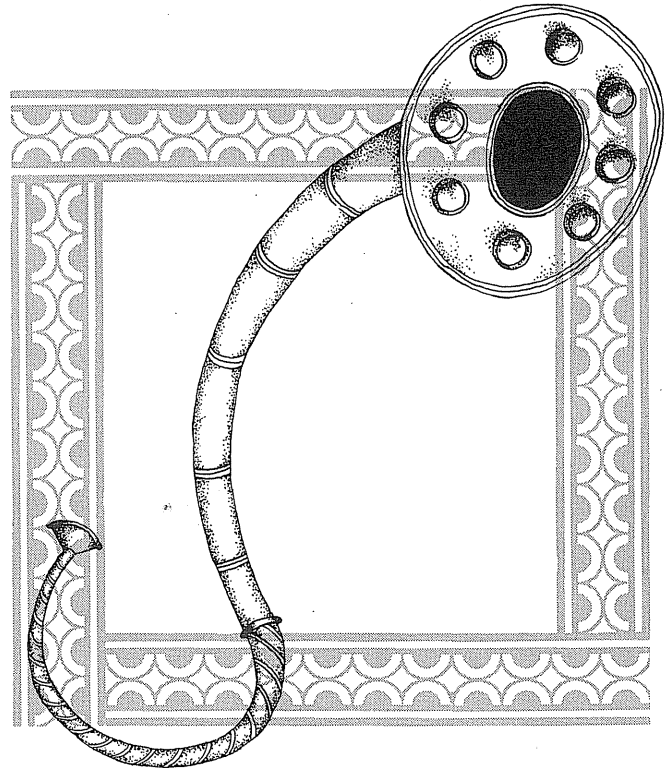
러분의 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북소리를 내는 음향 파동 작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북이 최초의 악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속이 텅 빈 통나무를 막대기로 두들겨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와 팽팽하게 펼쳐진 동물의 가죽을 두들겨서 나오는 유쾌한 음향을 발견함으로써 최초의 북이 생겼습니다.

북은 탬버린, 트라이앵글, 실로폰과 같이 타악기에 속합니다. 이 모든 악기는 한 물체를 두들기고, 흔들며, 굽음으로써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 줍니다.

줄에서 소리를 내어 음악을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현악기를 만들려면 책을 고무줄로 감아 보십시오. 양쪽 끝에 연필을 끼고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고고학자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경적이 약 4,000년전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인간은 쇠를 휘어서 원을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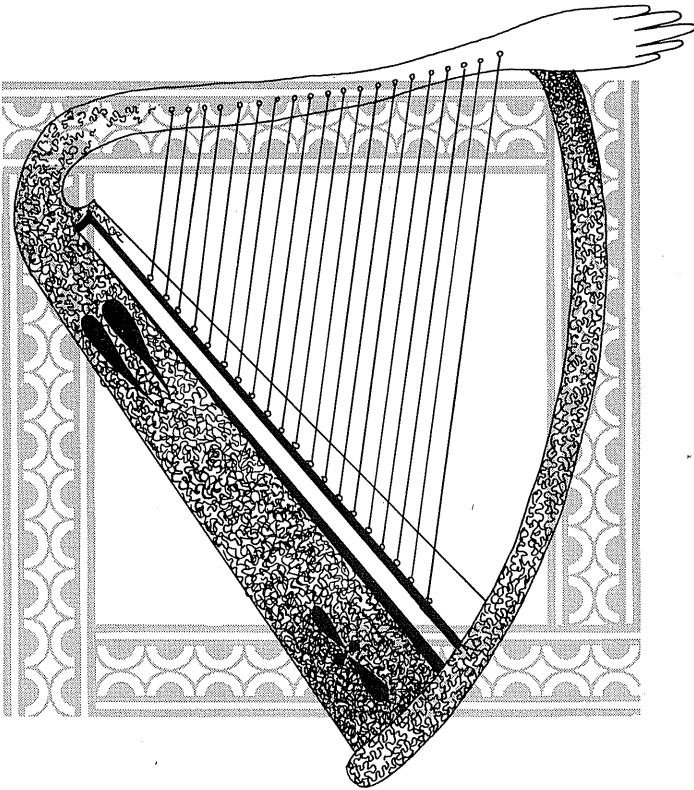


팅기어 보십시오. 왼쪽 손가락 하나로 책을 감은 고무줄의 맨 왼쪽을 누른 다음 다시 줄을 Ting기어 보십시오. 고무줄을 따라 왼쪽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옮길 때마다 고무줄의 진동 부분은 짧아질 것입니다. 그 진동하는 고무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이 빨라집니다. 고무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더욱 높은 선율을 만들어내는 높은 주파수가 생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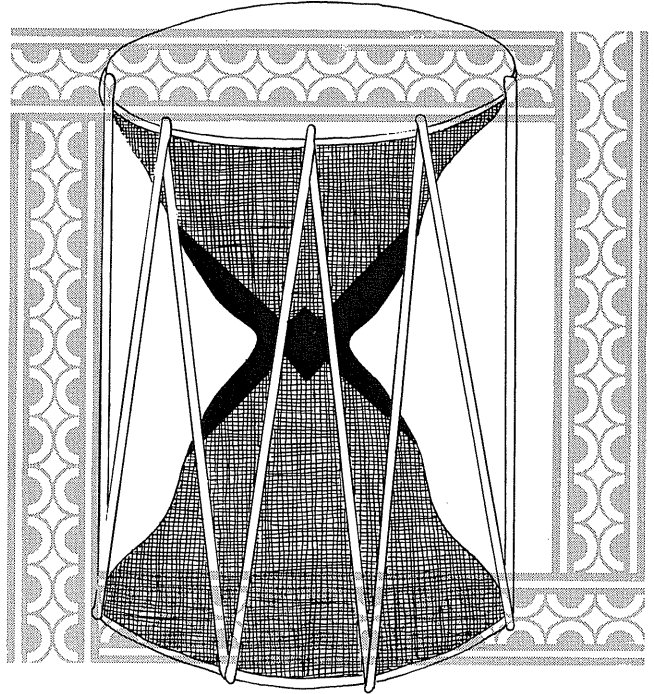
이것이 “바이올린” “하프” “기타”와 같은 현악기으로써 아름다운 음을 내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한쪽 끝이 열렸거나 단혀진 길고 반듯하거나 구부러진 “튜브”를 통하여 바람을 불어 넣으면 위 아래와 음향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의 입 끝에 여러분의 입술을

“하프”는 오래전 구약시대 초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고대 “하프”의 기본입니다.



장구는 수천년 동안 동양 사람들이 매우 즐겨 사용한 악기입니다.



밀고 압박하여 붙어 보면 음률이 납니다. 그 병에 물을 약간 부은 다음 붙어보면 조금 다른 음률이 나옵니다.

병에 붙어 넣은 입김이 공기의 흐름 줄기를 압박합니다.

그 공기가 병 밑바닥에 닿으면 자유스럽게 빠져 나와 퍼질 수 있는 병의 주둥이에 다시 튀겨 올라옵니다.

진동하는 이 공기의 흐름 주기가 주위의 공기를 두드릴 때 일정한 주파수의 음파가 생기게 됩니다.

경적과 “크라리넷”과 같은 관악기는 바람을 불어 넣는 풍력 악기입니다. 풍금 역시 그러한 악기입니다.

노래란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도 가장 진기한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목청은 현악기나 관악기의 조화를 이룬 민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튜우브”나 줄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다른 음성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대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파는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입, 목, 입술 그리고 음률을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도 도움이 됩니다. 두 코구멍을 손으로 꼭 친 다음 소리를 내려고 해보면 여러분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자장가를 들어 보십시오. 초등학교 주일학교 그리고 성찬 모임에서 노래를 불러 보십시오. 명랑한 곡에 맞추어 춤을 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음률은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동이 되고 있습니다. ㉠

뒤의 일을 잊음

케네스 엘 히그비

형 한 신문 편집인이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툭으로 나무를 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쳐보신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손이 올라 갔습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툭밥을 쳐 보신 분은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툭밥을 쳐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툭밥은 이미 썬 것이지요. 그것은 과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걱정하는 것은 바로 툭밥을 썰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얽매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발잡을 이루지 못하면서까지 고민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끔은 유쾌하지 못한 결과를 안겨다 주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

람이 가끔은 무관심과 실수로 황금과 같은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끔은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를 당해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단지 그것 때문에 인류의 대열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실수란 인생의 바람직한 일면은 아니나 그것이 도움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수를 잘 알아 이를 재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는 미래의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실수나 파오는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찾고, 그런 다음 그것을 잊을 때, 우리에게 건설적이고 유익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파오에 크게 집착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란 도덕적인 면에서의 파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과거의 죄에 집착하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엡 14:6, 39:8, 롬 2:9 참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게 될 때 무한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모 2:38, 골 9:3-4 참조).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엡 5:18)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으며,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아무

런 죄도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이를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성 64:7, 58:42)이 약속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여겨 주십니다.

바울(행 23:1), 베냐민 왕(모 2:27), 요셉 스미스 등은 모두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후회나 가책의 짐을 떨게 되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이보다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지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속을 통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나 어찌 능히 살리요...”(겔 33:10) 대답은 행복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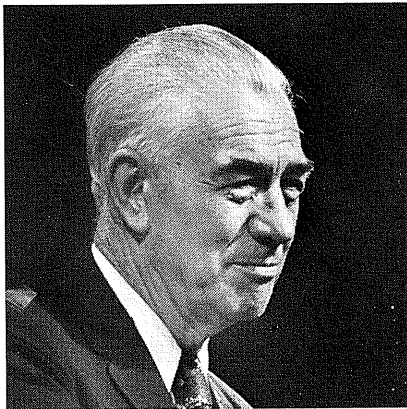
파오나 좋지 못한 추억을 간직하고 과거의 고뇌 속에 웅크리고 있으며, 회개한 죄에 대해서 수차 고통을 받는 일은 해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툭밥을 썰려고 헛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파오에 집착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나 정신 위생학적으로 볼 때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대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빌 3:13) 노력하십시오.

히그비 형제는 프로보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이며, 현재 브리감 영 대학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원히 함께 함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원히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김블 대관장님의 위대하신 지도력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김블 대관장님의 놀라운 지도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과 교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받들고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블 대관장님, 우리는 대관장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케네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를 둔 선량한 시민이며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로 단합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다니며 함께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의 가정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한 나머지 언젠가는 그 모든 행복이 끝나게 되고, 다시는 이러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으며, 지금의 행복이 한갓 즐거웠던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케네스와 그의 아내 루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신앙이 없이도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정직과 덕행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족이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네스가 직장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들의 주말 계획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저는 케네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네스 형제님,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봅시다.

형제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삶이란 불안정한 것이어서 지금 형제님이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틀림없이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랄프 스튜와트 형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를 불구로 만들고 결국 생명까지 앗아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단란하던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말 오락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불행한 일을 마음에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형제님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현실주의자로서 당면한 문제를 성숙한 눈으로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형제님의 가족을 이와 같은 태도로 바로 보지 못합니까?

얼마 전에 나는 한 아름다운 석조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문앞에 있는 잘 정리된 게시판에는 다음 주일에 있을 설교 제목인 “당신은 어디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라는 설교 광고가 조그맣게 붙여 있었습니까.

저는 그 글을 보고 멈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큰 공항에서 리처드 엘 이반스 장로님과 함께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급히 달려 가는 사람, 택시를 찾는 사람, 친구를 찾는

사람 등 갖가지의 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반스 형제는 그들을 보고 있는 시선을 제게로 돌리며 “저 사람들이 진정 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형제님, 그 사람들은 형제님처럼 그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진정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형제님의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형제님은 언제나 지금처럼 즐거움을 누리고 살려 하십니까? 지금처럼 언

제나 가족과 더불어 살려 하십니까? 형제님은 영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본향 향해 나아가세
저 밝은 땅을 향하여
영생 위해 일하리니
우리 인도하는 별

2절

매일 우리 가려 하는

하늘 향해 나가세
모든 선행 면류관 얻을
본향으로 이끄네

면류관 위해 영광 향해
찬송가 64장

이 노래는 오래된 노래로 형제님이 잊고 있는 바로 그것을 생각해 해주는 찬송가입니다.

케네스 형제님, 영원엔 존재합니다. 형제님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제님은 이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합당한 곳을 마련키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하였듯이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마 5:48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라는 마음만으로 그와 같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만이 우리에게 바라는 결과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성공을 얻는 데 필요한 기본 공식입니다. 우리가 그 공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형제님은 학교에서 화학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공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영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식인 주님의 복음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따르면, 형제님이 지금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가 있으며, 죽음이나 부활도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형제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은 불완전한 방법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공식을 우리가 학교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경고와 함께 주시니

다. 우리가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율법을 범할 수 없음을 염두에 넣으면서 다음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까. 순종은 위대함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순종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니파이삼서 12:20)

이 말씀이 형제님과 형제님의 가족에 대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교회 초기에 구세주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교성 25:15)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케네스 형제님, 형제님은 신권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임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44)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함으로써 특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아내와 자녀도 그와 같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교회에 나가 그의 프로그램에 따라야만이 그와 같이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진정한 구원의 계획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는 방법임을 형제님은 알지 못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않은데도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곳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세주와 같은 성품을 갖추는 일은 노력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며 오직 그의 복음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미온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것이 그의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속한 자는 다 교회의 계명과 서약을 모두 지켜 준행해야 하느니라.”(교성 42:78)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땅에 밀을 심으면 밀이 자라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품을 기쁨에 있어 의의 씨를 뿌리면 그와 같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선을 심으면 선을 보상으로 거두리라.”(교성 6:33)

이는 결국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마 6:14) 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

환언하면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장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면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케네스 형제님께 묻겠습니다. 형제님은 아내와 함께 어디서 영원을 누리시고 싶습니까? 자녀와는 어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까?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형제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헤어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제님이 이 세상에서 주저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원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지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님의 행동이 아내와 자녀의 영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형제님은 알고 계십니까? 형제님은 매개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형제님이 보인 행동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청결한 또는 불결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 곧 형제님의 손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님은 지금 형제님이 하는 행동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님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가장 훌륭한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것을 바라십니까? 지금이 바로 형제님께서 아내와 자녀와 손자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가족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방법을 따르십니까? 세상의 방법은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며 그 희생은 너무 큼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전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전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더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결별하여 혼자 남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영생과 크고 끝이 없는 행복과 하나님을 만나 그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탐구하는 마음과 연구와 명상의 자세를 갖지 않고, 편견과 오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이처럼 큰 축복과 특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영원토록 남을 위해서 봉사만 하는 독신자로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죽은 후에 고아가 되어 방황하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맛본 큰 기쁨을 영원토록 더하며 영원히 지속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데도 혼자 외로운 영생의 길을 걸어 가지겠습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간절한 권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어 주십시오. 케네스 형제님, 저는 형제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형제님께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앞일을 준비했으나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게을리 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 주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킴블 대관장과 함께 케네스 형제님과 온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케네스 형제님들께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것을 간곡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요리와 성약 84 : 37-38)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특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죽은 후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의 충실한 자녀를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십이사도 점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영적인 대회에 참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훌륭한 음악과 총판리 역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훌륭한 생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의 일을 끝마친 후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나의 사랑도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와 선교부를 방문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성도들을 만났으며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영의 인도로 오늘날 전세계에서 교회가 크

게 발전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훌륭한 지도자이신 킴블 대관장님과 두분의 부대관장님을 택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다운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결혼의 성약을 맺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자녀를 갖는 경험도 갖지 못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전해드릴 말에 대해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그러한 경험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어 버린 각국의 수많은 청년과 선교 지역에서 사망한 많은 청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네델란드 선교부장으로 재임하던 중에 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훌륭한 선교사들 중의 한 명을 직접 내 팔로 안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충실하고 훌륭한 자매로서 해외 왕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 합당하지 않은 남자에게 그들의 생애를 맡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지상 생활에서 결혼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자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선교사 부름을 수행하였고,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으며, 시온의 젊은이를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자매들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가지 예로서 나의 가족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홀란드 선교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에 돌아온 후 2, 3년이 지난 뒤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는 내게 천사가 그 애를 자기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보았다고 느꼈다면서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나는 그 애의 네 자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대회에서 네 자매 중의 하나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죽은 딸의 다른 세 자매도 역시 그들이 가진 재능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훌륭합니다.

우리가 잃어 버린 딸은 세돌 반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 딸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뿐 아니라 지상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이미 죽은 딸이 결국에는 영광을 얻게 되고 지상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녀의 네 자매들과 대등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지상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 곧 진실하고 충실한 그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일들을 달성하려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값진 진주, 모세서에서 기록된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는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에게 불사불멸을 가져다 주는 일이란 말은 오늘 아침 롬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을 뜻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때에 태어나지 않으며(문제될 바 아님) 또한 한 번에 죽지도 않습니다. (엘 40 : 8 참조) 아브라함서에 기록된 경전의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상에 내려 올 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 : 25)라고 말씀하신 후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아브라함서 3 : 26)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상에 오기 이전의 전세의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뒤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아브라함서 3 : 26) 우리의 죽은 딸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둘째 지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교성 3 : 1)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명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교성 76 ; 3-4)

이외에도 주님은 예언자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행하는 일이 다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행하는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 것임이라.” (니이 29 : 9) 이제 우리는 이 경전의 말씀을 통하여, 값진 진주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자녀의 머리위에

영원토록 더하여질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의 사업을 중단하시게 될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딸 넷을 두고 나서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다가 그만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곳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갓 16세가 된 그는 나만큼 키가 컸습니다. 지금 이 대회에 참석한 그의 형제들은 모두 가정을 갖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현재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그 아들이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 현재 지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이르게 되는 영광의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영광에 머무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교회 회원이 아니었음)이 우리 집에 방문하여 아내에게 내 아들이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가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똑같은 나이에 죽은 나의 손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대회에 이 아이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불과 2, 3일간 앓다가 아름다운 때인 16세의 소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다른 자녀들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모든 것을 중국에는 그 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해 감사하는 나의 열의가 식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비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앗아 그 비용

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누가복음 14 : 28-29)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 후 그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준공하지 못하는 건축자와 같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처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선교사 부름을 완수하였으며 보조 조직 역원으로도 봉사하였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획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그녀가 현재 그녀의 언니인 내 아내가 우리의 훌륭한 가족과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교성 76 : 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천 년 동안 다스릴 복천년의 통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천년 동안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복천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복천년 동안 일어날 일을 일부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되고, 이리와 사자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될 날을 보았습니다. 그의 백성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들의 손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65 : 17-25 ; 12 : 6-9 참조)



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복천년 동안 일어난 일에 관해서 언급하신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과 월포드 우드렘 대관장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개의 신전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신전이 건축될 것이며, 수많은 남자가 신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하던 때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백성들을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3 : 372) 만일 수천 개의 신전이 건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전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이러한 영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마련해 두셨을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월포드 우드렘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시면 천년 동안 이 구축의 사업이 행하여질 것이며, 신전은 요셉의 땅인 남북 아메리카 뿐 아니라 유럽과 전세계의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19 : 230)

나는 주님은 그가 행하시는 바를 알고 계시며,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두셨다는 확신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의 말을 끝맺고자 합니다.

따라서 끝으로 나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 곧 낙원에 들어 가서 많은 것을 보았으나 그것에 대해 기록하도록 허가받지 못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 : 9)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 이요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사 65 : 23)이 경전의 말씀은 가족이 계속해서 존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 : 11)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다면 주님은 결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두셨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복천년의 통치에 관해서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음이 없으므로 슬퍼하는 일도 없으리라.

“그 날에 유아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니, 그 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되리라.

“저가 죽을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같이 잠자지 아니하고 다만 눈 감박하는 사이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워 가리니, 저의 안식은 영화롭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101 : 29-31)

이와 같이 저는 나무의 수명과 같게 살 것이며 그후에는 다만 눈 감박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그들이 부부관계를 맺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음)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45 : 58-59)

또한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에 관한 계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교성 132 : 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들이 영의 세계에서 선택한 신부를 보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그가 내가 말씀드린 그의 조카(나의 손녀)처럼 훌륭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재회하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

『당신은 75년 한국 대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974년 10월 6일
제144 반연차 대회,
일요일 아침 모임.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스러운 신전 입구에 서서 매일 국내 국외의 저명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내 머리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과거의 교회의 역사에 관한 생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포드 여사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은 1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일리노이주 커머스에 있던 우리 성도들은 집도 없이 절망 속에서 앞으로 곧 다쳐 올 혹심한 겨울 추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미주리로부터 추방당하여 피난지를 찾아 미시시피 강을 건너 일리노이로 왔던 것입니다.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성도들은 아름다운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늪지대였기 때문에 마소가 한 번 지나려면 온통 진흙 투성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늪지대가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아름다운 나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839년 당시 그곳은 추방당한 수천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 커머스였습니다. 성도들은 수년동안 공들여 이룩한 집, 곳간, 교회, 공공 건물, 그리고 비옥한 농토를 남겨 둔 채 쫓겨 났던 것입니다. 더우기 성도들은 폭도들에게 살해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주리 땅에 묻어 놓고 쫓겨 났던 것입니다. 미주리의 핍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의와 절망에 빠진 성도들은 미합중국 대통령과 의회에 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히그비가 워싱턴으로 가기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은 1839년 10월 20일 이룬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5주만에 워싱턴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투숙할 곳을 찾느라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후에 그들은 하이람 스미스에

산위에 있는 동내

새로운 워싱턴 신전은
위대한 봉화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봉화는
우리 자신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손님이란 미국의 대통령 부처, 대법원 판사, 국회 상하 의원, 각 국 대사, 성직자, 교육가, 실업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특별 손님 이외에도 이 성스러운 신전을 보기 위하여 30만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신문과 잡지는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이 소식을 널리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동부에서 건축된 건물로써 이와 같이 큰 관심을 모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예외없이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전을 떠나면서 포드 여사는 “정말 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최근에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워싱턴 신전

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싼 여관을 찾았습니다.”(교회 정사, 4:40)

미합중국의 대통령 마틴 반 뷰렌을 찾아가서 그들은 성도들의 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탄원 사유는 정당합니다만 나로서는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내가 당신들을 지지해 주면 나는 미주리의 표를 모두 잃게 됩니다.”(교회 정사 4:80)

그들은 의회에도 찾아 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낙담의 몇 주일이 지난 뒤 요셉은 말을 타고 커머스로 돌아 왔습니다. 히그비 판사는 그대로 나머지 탄원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의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워싱턴에서 거절당했던 1839년부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환영받고 존경 받는 1974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얼마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최근 워싱턴 신전에서 지낸 며칠 동안 생각했던 교회의 첫장과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 첫장과 마지막 장 사이에는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944년 6월 27일에 있었던 요셉과 하이람의 비참한 죽음; 나부의 멸망; 강을 건너 아이오와 영내로 여행하는 포장마차의 긴 행렬; 1846년 봄의 눈과 진흙; 미주리의 윈터 쿼터즈; 열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 성도들의 탄원을 무시한 정부가 발부한 증원 요청; 엘크혼, 플레이트, 스윗워터, 에브래스카와 와이오밍을 잇는 강, 사우드패스를 거쳐 이 계곡까지 잇는 무덤의 행렬, 동부와 영국을 떠나 손수레를 끌면서 라이오밍에서 겨울을 맞아 농사해 가며 여행을 계속한 수천 수만의 성도들; 이 계곡을 덮은 관목을 헤치며 나간 일; 전소한 땅에 물

을 끌기 위하여 수마일을 판 일; 편견에 찬 사람들이 성도에게 보인 태도; 바로 이 워싱턴에서 법을 만들어 연방 정부가 집행한 시민권 박탈 행위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이 서사시적인 역사의 한 장을 이루어 줍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날을 모두 이겨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시련의 가시밭 속을 계속 걸어 온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하여 그들이 치룬 값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가며 후대에게 존경심을 심어 준 신앙의 선조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좀더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호기심으로 워싱턴 신전에 왔다가 감명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속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숲으로 덮힌 언덕에서 하늘로 향해 솟은 주님의 집의 반짝이는 첨탑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놀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나의 머리에는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성구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워싱턴 신전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숨기우지 못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명목상 교회 회원인 사람이 범죄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 언론 기관이 그가 몰몬이라는 사실을 곧 보도하는 것을 보고 때때로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가 다른 교회의 회원이었다면 종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행위가 곧 우리에게 대한 간접적인 찬사를 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계는 우리에게서 좀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 났을 때, 언론 기관은 이를 곧 보도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세상이 모두 보고 있는 산위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대로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벧전 2:9)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현 추세의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또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언자의 가르침을 계속 따른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이 주목할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일례로써, 세상의 압력으로 가족의 고귀함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세대에서 가정을 중히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는 더욱 현저하고 독특하게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 개방 주의가 만연해 감에 따라 교회의 교리는 일세기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가르쳐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생각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의 사회에서 알코홀 음료

의 소비가 증가되며, 많은 광고가 사람을 유혹함에 따라 일세기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표준은 세상 앞에 더욱 더 독특하게 나타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요구를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 커감에 따라 교회도 단독으로 사회 봉사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교리는 더욱 더 독특해질 것입니다.

안식일이 상업의 날로 바뀌어짐에 따라 시내산에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시고 현대의 계시로 다시 강화될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욱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품위를 지킬 수 있으며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의 태도를 버릴 수 있으며 우리의 표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향은 이와는 다릅니다. 많은 것이 이에 굴복하였습니다.

1856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말에 사랑하는 대관장님의 조부되시는 히버 시 킴블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스러운 계곡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데 섞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얼굴과 성도의 얼굴을 가리기 어려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형제 여러분, 커다란 타작의 날이 올 것이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노니, 시련의 날, 시련의 날, 시련의 날이 옵니다. 그때에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으실습니까?”(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블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45, 446페이지)

그 시련의 성격을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란 바로 지금이며, 시련이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업계, 과학계, 정치계, 의학계, 교육계, 기타 여러 가치있고 생산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과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일을 훌륭히 행하도록 우리의 손과 머리를 숙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표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훈계를 따르므로써 가족의 고결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며,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성을 파괴하는 호색 문학의 물결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코홀 음료를 피하고, 알코홀 음료의 판매와 진열을 규제하는 법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이 느끼고, 같이 손을 잡고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짐을 정부에 미뤄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를 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도와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일간의 평일이 있는 이상 반드시 안식일에 가구를 구

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한다면 일요일에 식품을 구입하는 일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표준을 지킬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며, 그들도 옳은 길을 따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이사야 2:3) 우리는 타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켜신 등불은 온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들이 우리에게서 본 모범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것입니다.

워싱턴 신전을 떠날 때,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은 철탑을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은 이 나라를 위대한 국가, 위대한 국민으로 만든 덕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상징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상징, 아니 이보다 더 인상적인 상징은 워싱턴 신전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오락을 즐길 때까지도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될 산위의 동네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 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이 진실이며 이 사업이 진실하다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圖

대회를 우리생애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대회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우리가 대회의 가르침에서 개인과 가족의 목표를 선정할 때, 우리의 생활은 변화됩니다.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십이사도 보조



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같이 대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영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언자와, 우리를 이 모임과 이 앞에 가진 모임에 참석케 해준 예언자와 함께 일하는 영감받은 자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대회가 교회를 위한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교회에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지역 대회의 형식

으로 1971년에는 영국의 만체스터에서, 1972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1973년에는 독일의 문헨에서 그리고 몇주 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났습니다. 1975년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로, 알제틴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일본의 동경 그리고 한국의 서울에서 대회를 갖는다는 대관장단의 발표를 들어 이미 아실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1975년도에는 4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전형적인 행정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역 대회를 관찰하면서 나는 주님의 영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및 준비, 대회 말씀의 전달 방법과 통신에 관한 준비, 대회장까지 왕복 교통 수단, 숙식, 음악, 문화 프로그램 등 대회 준비에 대한 일체의 문제가 해당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의 관찰하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4년 동안 이같은 대회를 통해 가까이 접하는 동안에 주님은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영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훨씬 큰 지도력을 지니신 분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훌륭한 계획으로 이처럼 훌륭히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제가 교회의 회원이 된 후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것처럼 훌륭한 재능과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대회에 참석하려는 강한 열의를 보았습니다. 멕시코의 티주아나에서 온 10명의 성도들은 4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멕시코시티까지 48시간 걸리는 장거리 버스표를 살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긴 여행 동안 앓을 좌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다. “상관 없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내내 서서 가게 되어도 기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상하실 수 있듯이 그 버스에 탄 승객은 복음의 영에 감명을 받고 교대로 좌석을 바꾸어 모든 승객이 좌석에 얼마간 앉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멕시코의 어떤 성도들은 대회에 참석치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였으나, 금식과 기도를 한 후에 그들이 가진 것을 몇 가지 팔아 교통비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음식을 사서 먹을 돈이 없었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다. 그들은 대회 기간 3-4일 동안은 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다른 성도들이 마치 주님께서 그들의 영을 채워 주듯이 이들의 빈

그릇을 채워 주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핀랜드의 성도들도 대회를 맞는 태도가 특별했습니다.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한 증거는 대회 전의 신전 참석자 수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럽의 북쪽에서 스위스의 신전까지 가서 주님과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축하였습니다. 신전 참석자의 총수가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태리 북부에 사는 루이지 피티노 형제는 다른 유럽 성도들과 문헨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피티노 형제는 17년 동안 일요일에 한두 명의 성도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개회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토론하며 성찬을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은 모두 70대이거나 80대에 들어선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피티노 형제가 문헨 대회에서 14,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앉았을 때 느낀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체스터 대회가 끝난 후에 한 영국인 성도가 “저와 같은 성신권을 소유한 다른 2,000여명의 영국인 형제들이 신권회에 모인 것을 보았을 때 제가 느낀 그 감회는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봉사했을 때 얻은 간증과 훌륭한 이야기와 기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병고침, 마음의 변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시간과 재능과 돈과 자신을 바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일화가 생겼습니다.

문헨 대회에서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국 인도 독일인도 불란서인도. 덴마크인도 스페인인도 이태리인도 아니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침례받은 회원입니다” (대회 보고, 1973년 8월, 5페이지)

스톡홀름 대회에서 덴마크인, 스웨덴인, 핀랜드인, 그리고 노르웨이인은 함께 그리그가 작곡한 노르웨이 국가 “발견”을 불렀습니다. 지휘자의 이야기는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국가간의 질서의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수천명의 성도들이 네 나라의 300여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에게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대회에서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톡홀름 대회에 참석한 성도 중에 어느 누가 스벤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주신 조언과 행동 목표를 잊겠습니까. 예언자께서는 “오늘부터 이 땅에 새 질서가 시작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참석자의 수가 놀랄케도 많아져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뿌리박힌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대회에 모였습니다. 이 대회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회가 우리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가족이 보다 훌륭한 성도로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

습니까? 우리의 와드와 지부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 각자가 “새로운 질서”를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단상에서 3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이 대회가 끝난 후에 매우 특별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회의 소식을 실은 성도의 벗이 각 가정에 배달될 때 그 가족은 곧 메시지를 읽고 큰 자녀들이 선정된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의 밤에 대회의 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가족 및 개인 목표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기도할 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찬송가를 암기한다. 가족의 준비 상태를 검토한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행한다. 비회원을 교회로 인도한다” 그들은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자주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가장이 “우리 가족은 대회를 우리가 열성



을 다 쏟아야 할 일을 열거하는 주님의 목록으로 생각합니다. 대회는 우리 부부와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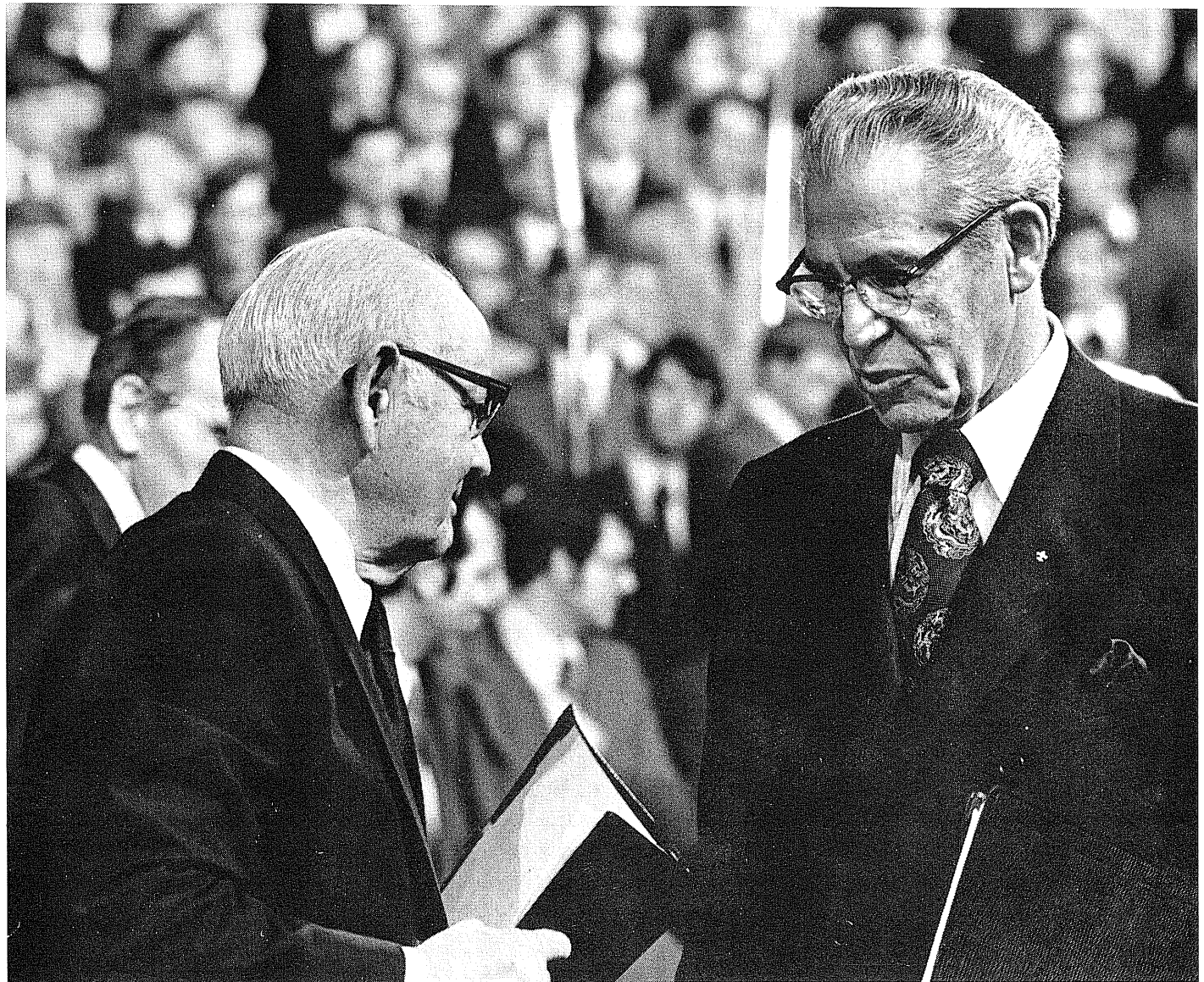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이 대회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뜻을 지니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역원과 교사로서 또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여러 대회를 참가하여 얻은 경험을 통해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신의 능력으로 나오는 말씀은 곧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성 68 : 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

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와드와 지부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나는 개인적인 놀라운 체험을 통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압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1974년 10월 4일 144차 반년차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뒤로 미루지 말라

우리는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엠티 아직 18세가 채 안된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하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는 물몬경의 마지막 예언자인 모로나이였으며, 이 청년은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모로나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경전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천사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의 전” 즉 신전으로 오신다는 사

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그가 오실 신전이 지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로나이는 4장 5, 6절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성경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 2서 : 38-39)

복음의 회복 과정에서 예언자에게 주신 첫번째 지시에서 신전과 신전에서 행하여야 할 의식에 관한 지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 나오는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신권의 권능으로 오실 것이며 교회에는 그들에게 언약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상의 기록을 모으고 의식과 인봉을 완수한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로 지상에 첫 가족을 이룩하셨습니다. 가

정이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여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 의하여 분가한 인간의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것은 모두가 정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가정에 있으며,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도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의 지혜로 인간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지상 생활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계에서 이와 같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족 단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주님께서서는 복천년이 끝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신권의 능력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인봉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 신권의 능력은 지상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되며, 지상에서 때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은 복천년이 끝나기 전에 이를 받아들이며 인봉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인봉의 축복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 가는 칩제를 받으므로써 얻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영원히 인봉되고,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자녀가 부모에게 인봉될 때, 그들은 새롭고 영원한 성약으로 태어난 자들과 같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대리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의 기록을 모으고, 그들을 위하여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일에 회복될 때,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교성 2:2)는 약속이 우리의 조상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상을 위하여 신전 의식을 행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진대, 우리의 구원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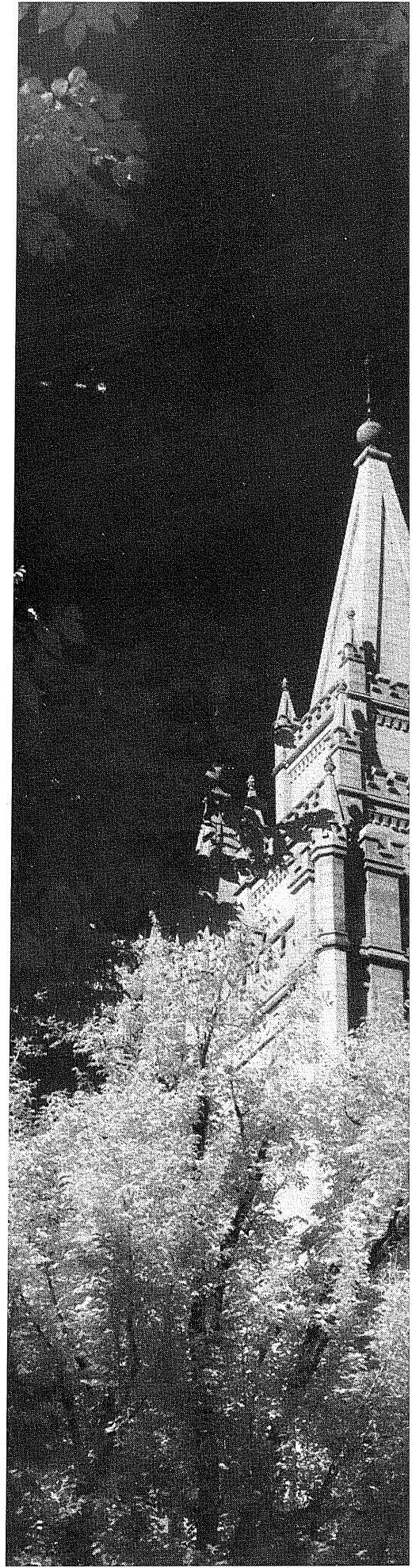
침례 의식은 물론, 영원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인봉 의식도 이 지상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부터 먼저 의식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영의 세계에 먼저 가신 조상을 위하여 대리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은 대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져 주님께 헌납된 신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제시를 통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안에 거하실 가장 높으신 이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는 저가 와서 너희가 잃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

버리신 것 곧 완전한 신권을 또 다시 회복할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음이라” (교성 124: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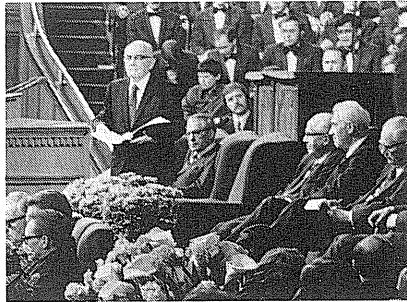
신전은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이곳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은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가족이 영원한 인봉을 받게 됩니다. 가족은 유일한 영원한 조직입니다. 신전은 아름다운 건물이며, 또한 아름다와야 합니다. 단지 보이기 위한 기념탑은 아닙니다. 신전은 모든 의로운 자가 승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을 제공합니다. 우선 살아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들은 이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마치면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려 조상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족의 탐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선택된 영들이 지상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상을 위한 신전 의식을 받기 위하여 하늘에 묶여 있습니다. 개종자 가운데는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또는 남편과 아내 단 두 사람만이 교회 회원인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 또는 그 가족의 어



는 누군가가 그들 가족의 제보 기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신전에 보내어 신전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상의 기록을 신전에 보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간은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신전이 세워질수록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각 신전에서는 매일 약 3천 명에 대한 신전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관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정규 양식에 기재하여 신전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기록을

잘 보관하라고 수세기 동안을 지시해 오셨지만, 악마가 우리에게 지체하도록 유혹하고 신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악마는 주님의 사업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어떻게 의의 힘에 대항하여 의를 전복시킬 수 있겠는가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 한 악마는 “내가 가서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은, “아니, 소용없을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반만 옳은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은, “아니,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서 모든 것이 다 옳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맞았어, 그렇게 하면 늘 우리가 이기게 될 거야.”라고 사탄이 말했습니다. 무시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 또는 이 지상은 주께서 오실 때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39) 이 지상의 운명은 우리가 신전 사업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는 자녀들에게 구원과 승영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이 회복은 결코 지상에서 거두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상과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가족의 단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음은 신권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일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㉞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서울 스테이크 제 2 보좌 최 욱 환

구세주께서는 너무도 유명한 산상 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 6: 33)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우리들의 목표와 생활 방법을 정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그 속에서 찾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물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르는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셨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축복 받을 자들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 8-10)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몸과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생명의 빛을 잡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즉 다른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8월에 이 땅에 예언자를 보내시는 뜻은 이 민족을 화평케 하기 위함이요. 사랑으로 뜨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참고 견디는 자가 천국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주께서는 강조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언자를 모시는 자세는 바로 계명을 잘 지키도록 거듭나는 것이요. 가족과 이웃에 참된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매일을 이러한 이상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과 화평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정직, 순결, 덕성 등 영적인 이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시온이 건설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다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